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죠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하는 소리 있어(찬44/새19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안경수 집사 2부/안지호 집사 3부/여흥평 집사 4부/최재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예수는 Jesus is (작곡 John Le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가복음 10:46-52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7:1-1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기회 삼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이방 땅에서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말 그릇 Word Bowl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파도가 한 번 치고 빠지면 어디선가 곧 파도가 다시 몰려와 그 위에 겹쳐지듯,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김윤나 씨의 '말 그릇' 이란 책을 읽었고, 지난 토요일 셀목자 정기모임에서는 그 저자의 '말 그릇'에 관한 강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게임 체인저 9번째 말씀으로 '작은 금과 호롱불'에서, 소금은 말의 분별력을 뜻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씀에 이어 이번 주간에 읽게 된 김범준 씨의 책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말 그릇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일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 말 뒤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 그릇에는 사람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혀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되기도 하지만, 말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말 한마디로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어 말 그릇에 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쏟아낸 수많은 말과 그 말을 들었을 상대방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말 그릇에 품격을 담아내고, 말 그릇에 사람을 담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저의 작고 연약한 말 그릇이 떠올라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얼마 담지 못하고 쉽게 넘쳐버리는 것처럼, 나의 작은 말 그릇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기다려 주지 못한 채, 중간에 금세 끼어들어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생각을 전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 나의 연약한 말 그릇은, 강한 자존심을 감추기 위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릇이 깨질 때까지 방어하며 변명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작고 연약한 말 그릇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더 늦기 전에 제 말 그릇을 좀 더 키우고 좀 더 단단하게 해야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상한 감정의 상처가 험잡다면 주변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말 그릇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 그릇을 조금 더 키우고 단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골 4:6)

When a wave sways to the shore, one overlaps after another. Likewise, one topic has been on my thoughts constantly. Last month, as I was listening to one pastor's sermon, I was introduced to a book "Word Bowl," written by Yun-na Kim. And last Saturday during the Cell Group Leaders regular meeting, a video clip about "Word Bowl" introducing the author of that book was shown. Additionally, last week's message by Pastor Bryan in his "Game Changer" series #9, entitled "Little Gold and an Oil Lamp," he shared that the "salt" refers to the discernment of words. He also said the discer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speak with kindness. This week, I came across another book, "Age 50's character is completed by speech," by Bunjoon Kim. And I feel as if God is continuously giving me messag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words."

The "Word Bowl" contains a person's character. Sure, we use words in our speech to express our thoughts, and we use speech in our jobs and our daily chores. But it is the speech and the choice of words that provides a person's character and personality. Thus, the "word bowl" can contain the character of a whole person. One word can cause great pain and injury resulting in losing that person forever. But on the other hand, as we have heard in our old saying, "one word can pay off a thousand (nyang) fold debt." So the choice of words play a great role in delivering our truthfulness which effects to gain that person. I can only imagine so many faces to whom I have spoken to, and their expressions as I threw out so many words to them. Remembering now, how I may have ashamed myself and disappointed others with poor word choices in my speech, because the "word bowl" impacts the character and engrave a permanent personality.

If the bowl is small, contents are limited and overflows easily. Likewise, I realize my conversation bowl failed to listen to others closely, and I was not patient enough until they finished their thoughts. I was too quick to intervene to assert my own thoughts instead. The weakness of my "word bowl" was used to hide self-pride, and I could not admit my wrong thoughts. Unfortunately, it was used to defend and dissent until the opponent's bowl shattered. It may take a while and it may require hard work, but instead of living continuously with this weak "word bowl," I need to expand and grow the conversational bowl before it's too late to mend.

Are you concerned as I am? If precious relationships are in jeopardy of breaking up, and heartbreaks are imminent, instead of blaming the surroundings, won't you discern the bowl of our own speech and expand the choice of our elegant bowl of words?

"Let your speech always be gracious,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you ought to answer each person."(Colossians 4:6, ESV)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주성필 목사

기회 삼기

마가복음 10:46-52

1. 그때 잡았어야 하는 데하고 아직도 못내 아쉬움이 남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2. 바디매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46, 47a절) 이렇게 바디매오가 일상에서 잡았던 기회를 보면서 우리 역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3.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던 무리는 소리 지르는 바디매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그러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47-48절) 성경 속에서 역경을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삼아 역전시킨 사람이나 사건 중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4. 바디매오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50절):

 -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할 때(51절):

 -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52절):

적용하기



■ 적용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수요 예배 시리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틀에 박힌 삶을 살아온 저는,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았으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일정한 틀 없이 자유롭고, 때로는 도전적이어서 약간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저는 언제부터인지 내 자아가 없어진 듯, 감정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제가 너무나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포장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틀에 박힌 삶을 살

면서 나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는 엄마들은 '내 이름을 찾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저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믿음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는 사람은 자신을 찾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옹아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유롭게 진정한 '나'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동안 잊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나', 나만의 '나'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하

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분이 있나요? 늘 못한다며 뒤로 주춤거리시는 분이 있나요? 매사에 불평이 가득한 분이 있나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김홍식 목사



신임 목회자 소개

이정연 전도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오랫동안 머물던 집과 홈 처치(home church)를 떠나 시작하게 된 첫 사역지가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이곳에서의 첫 예배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저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섬기게 될 사역자분들과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매일 경험하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베델

에서의 사역이 더욱 기대됩니다.

2. 전도사님의 신앙 배경을 알려주세요.

어릴 적 다녔던 교회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무섭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믿음'을 배워나갔습니다.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자아가 깨지고 저의 찌질한 모습을 직접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이게 바로 너고, 이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주셨으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3.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에스라 8장 27절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매일 기도

하며 하나님께 묻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쯤 읽게 된 구절이 '에스라'였습니다. 늦그릇처럼 색깔도 예쁘지 않고 투박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금처럼 빛나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싸우고 고민해 왔던 질문이 단번에 채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4.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작은 몸부림을 볼때마다, 그것은 멈춰 섰던 저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린이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을 쌓아 올리는 일 같습니다. 어떤 것을 쌓아가는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린 한 영혼을 감사함으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길 기도합니다.

예살 새가족 환영회

낮선 곳에서 만난 예수님



2022년이 찾아오고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신앙에 목말랐던 새로운 영혼들이 감사하게도 베델의 예살으로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초신자들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며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까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베델 교회 예살 공동체로 방문 해주신 한분 한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새 가족 분들을 위해 환영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의 수고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통해 일하시고 부어주시실 은혜가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다소 낯선 장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3주간의 새 신자 교육 과정과 더불어 새가족 환영회까지 참석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이런 기쁨의 환영회를 준비하고 섬기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함께 예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자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예살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강민석 형제(청2, 봉사자)

예살 공동체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3월 13일 주일에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는 예살의 새가족 분들이 베델의 가족됨을 축하할 수 있었던 뜻깊고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팬데믹의 긴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예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살의 한 가족으로서 셀목자가 이끌어 가는 방향에 따라 셀식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각자의 크고 작은 고민들, 슬픈 일, 좋은 일 모두 망설임 없이 나눌 수 있는 각 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이를 통해 새가족 분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짐도 편히 나눌 수 있는 모든 예살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새가족들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따스하게 반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베델 교회 예살 채플의 가족이 된 모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현 자매(청1, 봉사자)

어느 교회에 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베델의 예살 채플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구성원 모두가 하나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동체의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강문구 목사님의 파워풀한 은혜의 메시지가

감동으로 다시 예살 공동체로 발걸음을 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새가족팀과 목회진 뿐 아니라 셀식구들까지 다들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적응 또한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남남이었을지도 모르는 사이지만,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첫 만남부터 환영해주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의 지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 새가족 환영회에서의 즐거운 시간은 감동과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베델 예살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박제인 자매(청3, 새가족)

아직은 베델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때, 예살에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예살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베델교회,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네요. 새가족팀에서 열심히 준비한 퀴즈 게임을 통해 베델교회의 이모저모와 성경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도 참 새롭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선물, 그리고

따뜻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방문하던 날부터 가족처럼 따뜻하게 환영하며 안내해 주시던 새가족팀의 모습은 큰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베델교회에, 또 예살 채플의 한 지체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준 형제(청3, 새가족)



신임 셀목자 교육

잘 들으면 보입니다

2018년 가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된 저희 가정은 베델교회에서도 셀목자로 섬기고자 이번 신임 셀목자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셀식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눈물과 희생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윤근 집사

신임 셀목자 교육을 통해, 셀 리더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안내자로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또 셀의 필요를 공급하고 성도를 잘 훈련시켜 늘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셀 리더로서 담임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한마음으로 섬기고, 더욱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셀사역을 통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세원 목사

연약한 나 자신의 신앙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섬기고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늘 받기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셀목자 교육을 통해 셀모임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뿐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옳은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자, 세상의 모든 자라는 허물로 여기고 오직 그 속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셀목자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자는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교육받은 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간증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과 베델의 셀사역을 통해 베푸실 주님의 은혜와 주실 기쁨을 기대하며, 힘껏 헌신하겠습니다.

엄대석 집사



주변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서 셀을 맡아 섬겨야겠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다시 셀목자로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셀목자 교육 과정에서 여러 셀목자들을 만나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모든 것을 함께 하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셀이 되도록 힘써 섬기겠습니다.

오흥길 장로

온라인으로 시작된 셀목자 교육 첫 시간은, 팬데믹 이후 늘 접하던 흔한 훈련과정 중 하나라 무뎠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로 모여 교제하고 간증하며 여기에 더해가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하늘의 은혜가 매시간 시간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피부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매달리고 기도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그때마다 매 순간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어찌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셀목자'라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도, 믿음의 모습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셀모임은 나눔의 시간'이라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셀모임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윤승환 집사

말씀을 가까이하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종이 되는 삶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셀목자로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셀목자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로부터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셀목자로 섬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셀식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저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앤마리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2년 봄 새가족 환영회

할렐루야! 불편했던 외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3월 31일(목) 오후 6시 30분에 유년부(2-3학년) 예배실에서 새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중순 이후 교회에 등록하시고, 온라인 새가족 교육을 마친 신도님들(자녀 포함)을 베델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2022년 첫 환영회에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새가족 성도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시길 바라며, 잊지 못할 베델에서의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영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진의 사역 소개와 사역 장로 소개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가족 팀에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직접 준비한 최상의 음식과 천상의 온화한 분위기로 멋지게 장식한 곳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 새가족 팀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동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새가족 여러분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가족 여러분이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민 생활의 공허함을 믿음으로 채우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봄, 새롭게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에 자녀분들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회를 마친 후에는 일대일 양육, 제자훈련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베델교회에 새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모두 만나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일시: 3월 31일(목) 오후 6시 30분
- ▶ 장소: 유년부 예배실
- ▶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	4/3:	①부-연규호	②부-오승홍	③부-유형석	④부-강수연
	4/10:	①부-윤영걸	②부-윤주원	③부-이강오	④부-김도윤
	4/17:	①부-이강훈	②부-이광수	③부-이국선	④부-김수빈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4월)	4/2: 김진호	4/9: 김진환	4/16: 김태원	4/23: 김태윤
------------------	----------	----------	-----------	-----------

강단꽃(3,4월)	3/27: 선상균, 손용주, 장호준	4/3: 김정윤, 양석주, 최하차	4/10: 선상균	4/17: 노성애, 김성균
-----------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마 준(한외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아직 코로나 팬데믹 중입니다.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통제 안내 오늘 27일(주일) 마라톤이 있는 관계로 Irvine Valley College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405 Fwy에서 오시는 분들은 Jeffrey/University를 이용하실 수 없으니 Culve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생명 축제(D-21)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성카드는 언제든 작성하셔서 VIP 작성함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VIP 3차 작성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시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VIP 3차 작정이 있습니다. 3차 작성은 새생명 축제 당일 현장에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을 작성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 베델교회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환영회가 있습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3월 31일(목) 오후 7시,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2022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는 '십자가로 더 깊이(QTIn to the Cross)'라는 주제 아래 QTIn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특별히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여정을 영상으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장소: 4월 11일(월)-15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15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주차 Drill Sunday 4월 10일(주일)에는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이 날은 모든 차량(퍼밋 차량 포함)을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 새롭게 시작된 목요 프로젝트 "걸어서 베델속으로: 본격 사역체험 프로그램" 3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제직회 4월 9일(토) 토요일시바 기도회 후, 정기제직회가 있음을 알립니다.

◆ 일본어 예배부 이웃초청 야유회 일본어 예배부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야유회를 가집니다. 이웃 일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Mason Regional Park (18712 University Drive Irvine, CA) 문의: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 기도팀 모집 레위 기도팀에서 2, 3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실에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홍중 집사 (949)812-2906

◆ 교회학교 VIP 작성카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자녀들도 전도하고자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카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한글 QTIn 책 구매 자녀들을 위한 한글 큐티인 3, 4월호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새책 큐티인은 영유아부터 Kinder까지, 어린이 큐티는 1-5학년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주일날 실내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2022 VBS 조기 등록 마감 어린이 여성성경학교가 "Zoomer-ang: Returning to the Value of Life"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조기 등록이 오늘 마감하오니 체육관 앞 VBS 등록 부스에 오셔서 등록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월)부터는 일반등록이 시작됩니다. VBS 기간: 영유아 6월 7일-6월 10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K-5 6월 14일-6월 18일 오후 1시-오후 6시 30분 조기 등록 기간: 3월 13일-3월 27일 조기 등록 금액: 영유아 \$50, K-5 \$60 일반 등록 기간: 3월 28일-4월 10일 일반 등록 금액: 영유아 \$65, K-5 \$75

◆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비전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입구는 셔틀버스 진입로(원형 로터리)가 아닌 반대편쪽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영어 QTIn 4월호 판매 안내 큐티인 장년 영어 4월호를 교회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영어 큐티인 4월호는 (새책, 어린이, 청소년) 각 부서에서 PDF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故 윤영희 권사님께서 3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승현 형제, 김지연 집사, 김후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eize an opportunity

Mark 10:46–52

1. Was there ever a time where you were given an opportunity that you regret not taking?
2. Bartimaeus didn't overlook the news of Jesus while he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Vv 46, 47a) Looking at the opportunity that Bartimaeus seized in his daily life, share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also should use as an opportunity?
3. The crowd who called Him Jesus of Nazareth rebuked Bartimaeus to be quiet. 'But' he faithfully shouted even louder confessing Jesus as the Son of David. (Vv 47-48) Can you think of any person or event in the Bible that turned adversity into an opportunity of faith?
4. What did Bartimaeus put down to follow Jesus? Share what you need to let go of to seize the opportunity to follow Jesus.
 - When Jesus called him (V 50)
 - When you ask Jesus what you want (V51)
 - When Jesus said to go (V 52)

Apply to Life

